

제420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26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 ..... 4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어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박덕흠 위원 박덕흠 위원입니다.

국회 상임위 가운데 여야 합의를 토대로 사실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평가받은 농해수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의사일정마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야당 위원님들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우리 여당 위원들이 회의 후반에는 이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종덕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전종덕 위원님께서 제가 농민들에게 반정부 세력이라고 했다면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트랙터가 어떻게 반정부 시위에 사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지 우리 농민들에게 감히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 4법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주장도 저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농민을 폄하한 것처럼 매도한 것에 대해서 전종덕 위원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해당 트랙터는 2019년 마련이 됐고 당시는 문재인 정권 때로 트랙터는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2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승인을 요청한 트랙터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대북 반입을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종덕 위원님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에 대북사업이 중단돼 트랙터를 보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상임위원회장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박덕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종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글썄요, 이럴 때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덕흠 위원님은 우리 농민들의, 농업의 상징과 같은 트랙터 시위를 비판한 것이지 농민들을 폄하한 게 아니다 하셨는데 그 트랙터 시위를 누가 했습니까? 농민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 트랙터 시위에 대해서 반정부 시위라고 규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농민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한 것하고 뭐가 다른니까? 저는 그것은……

○박덕흠 위원 아니, 그 농민들 전체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건 말씀을 좀 삼가해 주셔야지.

○전종덕 위원 아니, 농민들을……

○박덕흠 위원 제가 농민들 전체를 반정부 시위라고 했습니까?

○전종덕 위원 트랙터에……

○박덕흠 위원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전종덕 위원 잠깐 얘기를 듣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는, 트랙터 시위에는 농민들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는 윤석열 내란 세력에 분노한 시민들이, 농민들의 정당한 시위를 연대하기 위해서 온 대다수 국민들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위원님, 그 자리에 한번 가 보셨어요? 가 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업 4법 거부권 행사와 윤석열 내란 세력의 우두머리가 아직도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규탄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시위를 한 것인데 그 시위를 오히려, 그때도 발언했습니다마는 이 정부가 막은 거예요.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막은 이 정부가 잘못된 것이지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행사한 농민과 국민들에게 반정부 시위로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발언이시고 그렇게 매도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걸 오히려 사과를 하셔야 될 거다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사실관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대외 정책이나 반북 정책이 강화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있고 모든 부분에서, 이번에 내란 사태에도 드러났지만 NLL 대북 국지전 유도 등 이런 것이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갈 필요는 없지만 대북사업이 그리고 또 대북교류 사업으로 했던 이 사업들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사실관계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번 내란 세력에 동조했다는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원장 어기구 이상으로 마무리……

○전종덕 위원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오히려 사과해야 될 사람은 박덕흠 위원님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드립니다.

○박덕흠 위원 한마디 잠깐만……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박덕흠 위원 제가 농민들을 폄훼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쪽에 나오신 분들이 농민들 플러스 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트랙터 자체가 2022년도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트랙터를 가지고 시위 현장에 왔었다 하는 것을 갖고 지적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엄 사태가 잘됐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 앞에서도 사과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정부 시위라고 한 표현을 가지고 지금 계속 꼬투리를 잡고 계시는데 어찌 됐든 정부 시위하는 것 아닙니까, 반정부 시위? 트랙터를 가지고 농민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2022년도에 승인을 요청한 건데 트랙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농민들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농민들이 왜 반정부 시위대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어기구 자, 이제……

○박덕흠 위원 그리고 농민들을 전체를 싸잡아서 제가 반정부 시위자들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어기구 이 토론은 저도 그 현장에……

○전종덕 위원 그래도 한 말씀……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이 우리 국민들께 전달됐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날 농민들의 집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의 표출이었고요. 또 철저한 농민 생존권에 대한 울부짖음이었다. 그리고 집회 자체도 상당히 평화적인 집회였다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하고 안건 상정해서……

○전종덕 위원 그래도 두 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어기구 이 건은 국민들께 충분히 의견이 전달됐으니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들이 또……

○전종덕 위원 짧게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1분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나가서 가지고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트랙터 시위도 대북 트랙터를 마치 전체 시위의 용품으로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날 참석한, 그날 참가했던 트랙터들도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트랙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현장에 가서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안 보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잘못이고요.

그 자리에 참석한 농민과 참석하지 않은 농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세요. 농민들의 대표가 참석을 한 거예요. 이게 농업 4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규탄하고 윤석열 반내란 시위에 대해서, 반내란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러 오고 지금 계속 반대 세력들이,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방해하고 있고 빨리 체포를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규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정부 시위라고 한 것 자체부터가, 그런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박덕흠 위원 트랙터를 반정부 시위에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게 왜 반정부 시위예요? 농민들이 참석한 것이 왜 반정부 시위입니까?

○위원장 어기구 이제 그만하세요.

○전종덕 위원 반정부 시위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에 사용했는지를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랬잖아요, 확인을.

○위원장 어기구 오늘 안건을 상정합니다.

○전종덕 위원 반정부 시위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요.

.....

○위원장 어기구 간사님, 뭐……

○이원택 위원 충분한 의견이 서로 개진됐으니까 이 선에서……

○위원장 어기구 그렇게 하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합니다.

---

## 1.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

(10시19분)

○위원장 어기구 의사일정 제1항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통해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 때도 정부 측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 5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실시하기로 양 간사님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아침 언론보도 하나 띄워 줄래요? 아니요, 그다음 언론보도 내용.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아침의 저 보도 내용 알고는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봤습니다.

○서천호 위원 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천호 위원 대농입니다. 6만 20ha의 논농사를 짓고 있는 대농 농민이 농협 RPC를 통해서 벼를 구입, 대형 톤백이지요. 그렇지요? 107개를, 벼를 사들여서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해서 그 차익을 얻은 겁니다. 이게 금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있었어요. 비단 이 농민 한 사람에 국한된 사안이겠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아침에 저한테도 제보가 오는데 제가 제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작, 소규모 단위의 농민들의 피땀을 대농들이 다른 방법으로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누리게 하는 이런 농정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간의 이런 탈법이라든지 불법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반드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제재 방법뿐만 아니라 그간의 2~3년 전 사안도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고 국민들한테 알려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천호 위원 그래서 이런 편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보니까 공공비축미 매입요령도 농림부에서 하달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이 부분도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공비축미 물량을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385만t 중의 17%가 공공비축미라는 얘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만약 이런 행태가 전국에서 횡행된다면 농정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천호 위원 쌀 공익직불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쌀 일변도 농정에서 탈피하자고 2005년도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던 쌀보전직불제가 2020년도에 공익직불제로 전환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천호 위원 공익직불제로 개편한 사유가 쌀 과잉 생산에 따른 타작물 수입이 증가되고 있고 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직불금, 쌀농사에 집중이 돼 있다. 제가 앞서 RPC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특히 대농 위주로 쌀 재배 쏠림현상이 너무 치우친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쌀보전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로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공익직불금제의 그동안 성과를 보면 소득이 일정 부분 안정이 됐든지 농업이 유지가 됐든지 소규모 농과 대농 간의 형평성 부분도 상당히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지난해 농림부에서 5만 명을 표본 추출해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가 5334명입니다. 보고받으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천호 위원 11%예요. 거기 내용을 보면 실경작 위반도 상당수였습니다. 착오신청이라고 하는데 착오신청도 지역의 행정책임자를 통해서 하는 신청이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 또 제도 개선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천호 위원 더불어서 전락작물직불제도도 시행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하고 있지만 식량자급률 자체는 달성치에 못 미친다. 2022년도 달성치 55.4%를 정부에서 제시했는데 22년도 수치를 보면 4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3%를 왜 그렇게 됐는지 하는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실제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내용이 사업 대상, 지급 대상 농업인, 농지 요건 및 단가 또 재원 소요 여기에 대한 연도별 방향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연도별 소요 재원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 제출이 안 됐어요.

또 공익직불제 운영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요약해서 간단히 제출했던데 실제 위원이 어려우면 위원을 가리고 그때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회의록 원본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실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떤 내용으로 제기됐고 그 내용들이 위원회 심의 이후에 기본계획에 어떻게 추가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제출이 안 됐으니깐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윤준병 위원 장관님, 경찰 조사 받으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참고인 조사 받았습니다.

○윤준병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난 일요일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지난 일요일입니다.

○윤준병 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문답한 내용 말씀하실 수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윤준병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건 그때 듣기는 기재부장관한테 계엄이라고 들었다고

여기서 말씀하셨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계엄이라고 상황을 얘기했고 주위에 있는 국무위원들에게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구체적으로 듣는 사람 있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말씀 하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들으신 분이 있을 거고요……

○윤준병 위원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얘기하셨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그다음에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농협 RPC 공공비축미와 관련돼 있는 부정행위 전수조사 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조치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거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윤준병 위원 이런 잘못된 행태들이 있으면 농식품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물론 관련돼 있는 내용이 대행 사업인데 대행 사업을 가지고 치팅(cheating)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횡령이기도 하고 내용에 따라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언론에 나왔으면 최소한 그 내용을 제대로 점검을 하셨어야지요. 이 부분은 어떤 조치들이 수반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농식품부에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여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계획인데 이 기본계획이 농업직불제 기본계획하고 동일하냐요, 동일하지 않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업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직불, 선택직불 이외의 농업 관련 직불성 예산까지 포함한 것이라서요……

○윤준병 위원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국정과제 처음 시작할 적에도 농업 직불 관련 예산으로 돼 있고요.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그 정의를 누가 했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공익직불에는 기본직불과 선택직불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농업 관련 직불성 예산을 모아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농업직불 5조 원 할 적에는……

○윤준병 위원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보면 직불제 하면 농업 직불제, 임업직불제, 어업직불제 이렇게 구별해요. 그러면 각기 법적 근거가 다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농업직불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직불제를 농업직불제라 그러지 이걸 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온 용어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공익직불제라고 저희가 그렇게 법에서는 칭하고요.

○**윤준병 위원** 공익직불제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니까 분야별로 농업직불제도 있고 임업직불제도 있고 어업직불제도 있는 것이지요. 직불은 공익기능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니만큼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유형별로 나누면 농업직불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직불제를 농업직불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농업직불제에 관련된 용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농업직불성 관련 예산이 있을 거고요, 위원님.

○**윤준병 위원** 아니, 그 농업직불성 관련 예산이라고 누가 정의하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거는……

○**윤준병 위원** 농업직불제를 농업직불성 관련 예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누가 하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국정과제 상에는 농업직불 관련 예산으로 돼 있었던 거고요.

○**윤준병 위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 만들었지요? 4월 달에 만들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농업·농촌 공익직불제에 따른 공익직불제를 의미해요. 그 내용 검토해 보세요. 이번 기본계획과 다른 점도 없고 거기에 포함돼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업직불성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다시 확인해 보고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찾아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장관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지난 13일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계엄은 잘못됐다, 장관님 많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지난 13일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병진 위원** 지금 입장 변함 없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계엄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그때 많이 후회합니다라고 위당을 가져가셨어요. 변함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 당시 장관으로서 제가……

○**이병진 위원** 짧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말하자면 임명받은 것에 대해서……



○이병진 위원 후회해요, 안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병진 위원 입장 변함 없어요? 그렇지요?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동의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법률적 책임이 있으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장관은 내란 공범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이병진 위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국민이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병진 위원 한덕수 권한대행이 농업 민생 4법 거부했어요. 거부권 제안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재의 요구를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건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안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짧게.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국민과 국회가 요구한 민생 법안 왜 거부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법안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병진 위원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여야정 협의체 통해서 한번 논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진 위원 무슨 여야 협의가 지금 어디 있어요? 1당, 2당이 있지요.

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맞습니까? 간략하게 대답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법률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진 위원 아니, 위헌이지요. 법률적 판단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궤변이.

윤석열 씨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답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병진 위원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답하기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위원님.

○이병진 위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답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같은 맥락에서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장관이 그렇게 하면 장관의 말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입만 벌리면 구라, 입벌구 같은 느낌을 주는데. 장관은 말이지요, 그때그때 각종 궤변을 들이대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쌀값 보장한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했지 쌀값 보장한다라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애매모호한 정도에 서서 기회주의적 속성을 보이고

있어서 장관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엄 당시에 반대했다고 해 놓고 또 거부권을 건의했어요. 이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위원님.

○이병진 위원 송 장관 하는 말마다 그래요. 기본계획도 국회에 이렇게 제출해 놓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혹시 아닐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병진 위원 4조 1항 어떻게 돼 있어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4조 1항 어떻게 돼 있어요?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시행령 또 만들었더라고요. 3조 1항 어떻게 돼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이병진 위원 제출하고 제출했으니까 됐다라고, 그냥 막 시행령 통치하니까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이병진 위원 지난 8월에 보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말이지요, 우리 부가 법률과 반하는 시행령을 시정하도록 지적한 바가 있어요. 개선했어요? 개선했어요, 안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진 위원 모르면 안 되지요. 개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법률을 무시하고 막 시행령을 내세워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심은 물론이고 법률까지 위반해 가지고 행하는 시행령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대선 때 공약 5조 원 한다고 그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여기 기본계획 보니까 3500억 규모에 불과합니다. 또 거짓말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왜 5조 원에 맞게 기본계획 수립 안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3조 4000억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7년까지의 목표는 5조 원이라고 그렇게 밝혀 놨습니다, 위원님.

○이병진 위원 그러면 내가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이만희 위원 힘내셔서 농업 현안들 하나하나 챙기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잘 챙기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또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가서 가지고 농민들하고 같이 호흡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만희 위원** 벌써 농업 공익형 직불제 도입한 지가 5년이 다 됐네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난 5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현장의 농민들하고 접촉해 보면 직불금 자체가 실경작자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땅 소유자 위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꺼리면서도, 쉽지 않으면서도 또 불만은 굉장히 가지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 부분이 진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부정수급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자격요건도 조금 더 완화해서 실경작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말하자면 단가도 좀 상향을 해 가고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해 가면서 개선 사항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선택직불제도 조금 더 늘려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만희 위원** 그래서 이 실경작 그리고 소유주 문제는 농정 당국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논밭 직불금 관련된 차등 지급도 아직까지 한 80% 수준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내년도가 80% 수준입니다.

○**이만희 위원** 장관님,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난번 국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기계화가 거의 이루어진 논과 아직까지 기계화 수준이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밭과의 어떤 경작의 직불금에 있어서 오히려 밭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관심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아직까지도 논밭 직불금의 차등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우리 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계화율이 63% 수준이고 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밭 같은 경우에 논하고의 수준이 내년도에 80%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금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만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고.

또 한 가지 현장에서의 불만 중의 한 가지는 휴경지 있지요. 휴경지에도 직불금이 지급되거든요. 현장에서 지금 지급이 되는데 휴경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관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잡초가 막 우거져 가지고 이게 밭인지 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방치된 휴경지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지급되는 직불금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또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지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게 지급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이만희 위원** 사실은 우리가 2조 400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3조 4000억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조금 예산의…… 물론 재정 당국에 그게 있겠지만 가는 속도가 좀 느리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리고 공익형 직불금에 대한 예산하고 농업 직불제에 대한 예산하고를 합쳐 가지고 전체를 공익형 직불금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지적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만희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입안정보험 같은 것들이 농업 직불금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익형 직불금이라고 같이 평가하기에는 조금 안 맞다 하는 생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예산의 구분도 좀 명확하게, 공익형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공익직불법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가 그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기본계획 작성하시느라고 관련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 오늘 저희들이 심의할 가치가 있는지부터 저는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짜깁기한 것밖에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23쪽부터 5개년 계획인데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연도별 추진 사항이 나와야 되고 그 연도별 추진 사항에 따른 재원 마련 계획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를 반영해서 기본계획(안)을 다시 작성해야 된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께서 5조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 중에 27년도에 5조 담겠다고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상 얼마 담으셨지요? 4조 담으셨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재부의 중기재정계획이요?

○**임호선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전년 동으로 해서 아마 같이 담겨 있을 겁니다.

○**임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3쪽 보세요.

주요 목표가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농가 소득·경영 안정 기능 강화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직불금 얼마 지급됐는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3조 1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2조 3000억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3년……

○임호선 위원 그것은 2조 3000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리고 24년도는……

○임호선 위원 24년도에 2조 3084억, 23년도에 2조 3018억. 그래서 이걸 2020년도에 비해서 300억 더 지급된 거예요. 그 자료는 필요하면 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공익직불만 지금 하신 거지요, 위원님?

○임호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이런 증가 추세 가지고 2029년까지 어떻게 5조로 늘린다는 건지 기본계획상에 연차별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차관님, 공감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걸 공익직불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도 연도별로 5조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걸 공익직불 기본계획이고요. 저희가……

○임호선 위원 5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차별로 어떻게 어떤 직불금을 얼마만큼 올려야 된다고 하는 계획이 담겨 있어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그러니까 이걸 공익직불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임호선 위원 오케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350만 원이라는 목표액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낮아요. 일본은 지금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공익직불만 해 가지고 농가당 350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100만 농가니까 3조 5000억이 됩니다, 공익직불만요.

○임호선 위원 무슨 뜻인지 다 알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재정 마련 계획 없이 52%나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 목표액만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지적 말씀은 29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본계획상에 연차별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뭐를 어떻게 해 가지고 55.5%, 이 근거가 뭘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38쪽 보세요. 온실가스 감축량을 29년도에 264만t 감축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출하신 계획서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표에 한번 보세요. 30년도까지 감축액을 500만t이라고 써 놔요. 같은 페이지에 감축량 목표액이 왜 이렇게 다르지요?

그리고 여기 감축 목표에 따른 감축 수단을 열거해 놔는데 정작 기본계획상에는 264만t에 대해서 어떻게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연차별 계획도 없고요. 관련 소요 예산도 전혀 축약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밭작물에 대해서 노동 시간당 소득이

쌀은 6만 5000원, 고추는 1만 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직불금으로 더 보충해 주지 않으면 저는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너무 엉터리인 게 29년까지 청년농 육성, 기후변화 적응 지원, 세대 전환, 기술 혁신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은 계획서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딱 두 줄 있어요. 농업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청년농 정착 지원, 기후 변화 적응,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등을 위한 신규 직불 도입 검토. 29년도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EU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호선 위원 그러면 계획에 담아야지요. 다시 작성하셔야지요. 저보고 작성하라고 해도 관련 자료만 있으면 지금 이것보다는 내용 더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더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3쪽에 29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를 55.5%로 넣었어요. 그런데 작년 4월 달에 발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보면 식량자급률 목표가 27년도에 55.5%예요. 이게 슬그머니 뒤로 2년이 밀린 이유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면적 주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실수인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주는 걸 감안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조정을 한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27년도에 55.5%가 아니라 29년까지 55.5%의 식량 자급률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이런 것이, 계획의 목표가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도 되나요, 면적이 준다고 해서? 그러면 23년도에는 면적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그런 결과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당시의 면적까지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돼 있을 것이 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또 조정을 해서 이렇게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잡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장관님 얘기대로 하면 재배 면적 감축하는 계획 목표는 24년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세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재배 면적 감축 방안은 24년부터 논의가 됐고 25년도에 본격

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도 하긴 했지만……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재배 면적 감축에 관한 방안을 가지고 와라, 자료 제출해 달라, 세부적인 내용 갖고 와라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제가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재배 면적 감축과 관련된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에 재배 면적 감축을 하려면요, 그 전에 제가 식량정책과를 통해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개별 농가, 그러니까 시도별로 그리고 시군별로 자체 감축을 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해서 자율적인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러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혹시 이럴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농가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고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감축안을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 달경에 전반적으로 한번 상황을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미애 위원** 장관님, 자율적인 감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실제로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논들이 모두 다 나락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운데에 내가 타작물을 재배하는 게 가능할까요? 관개시설이 안 되어 있고 배수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자율적인 감축을 하게 하려면 지구 단위를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든가 최소한의 어느 면적 이상을 타작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콩을 재배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경기도 쌀 전업 농가들 입장에서 배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타작물을 재배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얘기는, 그러면 지구 전체를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이 기반시설을 조성하려면 이웃 논도 함께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 지구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배수·관개시설들을 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중앙정부 사업인가요, 지방정부 이양 사업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배수 개선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지역 지원을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블록으로 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 감축 면적이 있고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요, 자율적인 감축에 의존을 해서 그것 신청받아서 감축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것의 정책적인 의도가 전적으로 투영되지 않으면 이것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온 들이 나락농사 짓는데 그중에 일부만 몇 개 빼 가지고 배수시설 할 수 없고요. 그 배수시설도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고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 다양한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이양수 위원** 서면질의할게요.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주철현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논의 안건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도 중요합니다. 마는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고 농민을 포함한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정국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날 우리 국회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해서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됐고 다음날인 11일에 바로 국회의장께서 대통령에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명단을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거의 2주가 다 돼 가는데, 13일째인데 특검후보 추천 의뢰를 안고 계세요, 권한대행이.

이건 법적으로는 지금 명백한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계시는 건데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대행님께서 아마 고민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주철현 위원** 아니, 고민을……

법에 분명하게 지체 없이 의뢰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체 없이’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신속하게 해야 되거든요. 보통 2, 3일 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이유도 없이 전혀 언급 자체를 안고 있어요.

어제도 24일 날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이런 것만 말씀하셨지…… 상설특검이 됩니까? 발효가 됐어요. 발효가 됐는데, 이제 후보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해야 되게, 분명히 대통령은 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지금 일체 말이 없거든요.

권한대행 들어서시고 지금 국무회의가 두 번 열렸지요? 세 번 열렸습니까? 매주 화요일이니까 두 번 열린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주철현 위원 24일하고 그 전 17일인가요? 열린 것 같은데, 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상설특검후보 추천과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안건이 상정되거나 논의된 일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직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본인 독자적인 판단하에 위원회의 심의도 안 거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깔아뭉개고 계시는 거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고민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어떻게 남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본인의 직무유기죄를 피하려면 국무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를 해 봐야하지요. 그런데 뭘 이유가 있습니까? 상설특검후보 추천을 의뢰를 할…… 송 장관님께서, 송미령 국무위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국무위원이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논의도 안 해 보고 혼자서만 고민하고 계신단 말인가요? 본인이 워낙 큰 죄를 지금 저지른 혐의자라서 직무유기죄 같은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그럴까요?

내란 특검법 공포도 마찬가지로인데, 이걸 권한대행께서는 ‘여야 합의를 해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시에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발표만 있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모두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면 논의가 된 일이 없네요, 이것 관련해서. 그냥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의견 표명이었지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게 없다는 이야기네요. 혹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권한대행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직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주철현 위원 글썄요.

그런데 정식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는 본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예요. 권한대행에 불과하고 본인이 지금 내란죄의 피의자 아닙니까? 혐의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거부권 운운하면서 ‘합의 해 와라. 안 그러면 거부권 행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송 장관님,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국무위원의 본령 아닙니까? 어찌실 생각이세요? 아니, 권한대행이 자기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왜 독립된 특검의 수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마 대행님께서 법률에 따라서 검토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철현 위원 제가 보기에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어요.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의 특검을 하겠다는데 이걸 거부권 행사하면 말이 됩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부산 사하율의 조경태입니다.

장관님, 공익직불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직불제를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가들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진국가들 가운데에서 비상계엄을 한 나라가 있나요?

대통령 취임선서문을 내가 읽어 드릴게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했고요.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지요. 장관님이 국무위원이면, 물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지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지금 시간 벌기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때 당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지금 대행이지요—포함해서 지금 국무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대통령 조기 퇴진, 조기 하야를 주장해야 된다고, 법률적인 처벌은 또 별도의 문제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장 표명해 주세요.

지금 이걸 몇 개월씩 끌어 가지고 계속 이게 국론 분열 일으키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제정세 불안하게 만들 걱정입니까? 오늘 환율이 지금 1460원이 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율이 1500원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제2의 환란이 온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중소기업은 이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도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도산 위기에 빠져 있다고요.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비상계엄 이후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지금 절반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고 역대 이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장관님? 물론 대통령이 장관님을 임명했던 임명권자이기는 하지만 그 권한은 대통령의 이름을 빌렸지 국민들이 내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동의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실에 찾아가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조기 퇴진, 조기 하야, 조기 사퇴를 여러분들께서 결의할 그런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대행님께 위원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꼭 지금 한덕수 대행께 말씀드리고요, 이 소란, 이 불편함, 이 난국,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 이 비상계엄의 동조자로, 그런 오해나 그런 낙인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지금 나오는 이 공익직불제, 저는 창피스럽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비상계엄을 한 나라가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이집트……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1인당 GDP가 1만 불도 안 되는 그런 국가에서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3만 6000불인 선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정책들도요, 여러분들이 내신 이 정책들도요, 선진국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지금 빨리 제2의 환란은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여당 위원들 말씀하시는 게 보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탄핵을 갖다가 반대합니까? 이것 완전 논리적 모순이지요.

장관님께서 이 시간 지나고 나서 꼭 제 이야기를 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무위원들 일동으로 빨리 조기 퇴진, 조기 하야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조경태 위원님의 말씀이 국민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위원님의 용기에 응원드립니다.

다음,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친부자, 반민생 정책을 취하면서 정말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조경태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까지 맞이하게 되면서 올해는 정말 기후재난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배·사과 일소 피해 관련한 대책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관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세워 주셔야 되는데 아직 농민들이 공감할 만한 대책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 일소 피해 같은 경우에 저온저장고로 들어가기 전에, 그때도 말씀을 했지만 과일이 매달려 있는 경우에만 재해 조사가 가능하고 일단 따 버리면 조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배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봉지로 싸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피해를 조사하기 어려운 조건이고 그리고 또 저온저장고로 들어가서도 실제로 이후에 나타나는, 봉지로 싸져 있기 더 이후에 나타난 피해는 눈으로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온저장고에 넣기 전에도 1차, 2차 검수를 하고 들어가는 거고 저온저장고에 들어가서도 검수를 해 보면 최근 이 배 농가의 경우에는, 보십시오. 배가 한쪽은 예쁩니다. 그런데 이쪽은 다 이렇게 다 타들어 가 가지고 상품으로 쓸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 저온저장고에 들어가 있는 배 한 박스를 가지고 엑스레이를 검사해 봤더니 그중의 50%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직접 찾아도 오고 여러 방면으로 호소도 드리고 했는데,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드렸는데 아직 농업재해 인정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밀려오는 정책자금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연체라든지 이자 감면 이런 것 관련해서는 좀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자체가 일부 농약대에 50% 정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 턱없는 내용 아닙니까, 농민들의 피해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책자금 상환 연기하고 이자 감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금 상환 연기하고 이자 감면 이 부분 저희가 할 거고요.

○**전종덕 위원**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또 재정도 빈약하고 하시기 때문에 특교세 같은 것들을 좀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하셔서 그나마, 힘들어하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희망이라도 갖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도요 종합보험으로 방식을 전환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배 같은 경우는 따 놓고 나서 저온저장고에 들어가고 나서 피해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도 피해 확인이 되면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과 함께요 그다음에 보험 산출 시 보험가액이 떨어지고 보상 금액이 축소되다 보니까 농민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보상 비율을 높여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관 개정 시 이것까지 포함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검토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오늘 제출한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서(안)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재배면적 조정 부과 관련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쌀 생산 면적 8만ha 감축은 이후의 기후재난을 보더라도, 이후의 국제 관계에 전쟁 등 이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쌀 생산면적 감축은 식량자급률을 위해서라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굉장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재배면적 조정을 하면서 만약에 재배면적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강제로 재배면적을 하고 만약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의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경작권을 침해하는 폭력적 방식일 뿐만 아니라 너무 과도한 제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농림부의 입장이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만들어 주신 현행 법률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달까지 농가들 지역별로 올라온 이행계획서 보고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예기간을 뒤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따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사과 농가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다음,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입니다.

장관계서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현장에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들었고 비록 대통령께서는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시다만 반대 의사를 현장에서 표시했고 여러 차례 동료 위원들, 저, 또 얘기를 내란 동조자 아니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향후에, 그 이후에 장관님의 어떤 행태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혹시 농림부 대변인의 계엄 관련 부적절한 문자 보낸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대변인의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

○**문금주 위원** 아니, 그러면 대변인이 그런 엄청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개인 일탈로 보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전혀 계엄에 동조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금주 위원** 너무 안일한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관께서 내란 동조가 아니라 한다면 내가 봐서는 그 당시에 이미 계엄 발표를 하거나 그러면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 했다면 농림부장관이든 아니면 여타 국무위원이든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왔어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나왔습니다.

○**문금주 위원** 끝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조경태 위원님 말씀처럼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대통령께서는 말할 틈이 없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문금주 위원 장관님 기자회견 좋아하시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란 동조가 아니라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할 수 있는 반대를 하기는 했습니다.

○문금주 위원 혹시 법무부 검찰관 얘기 들어 봤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못 들어 봤습니다.

○문금주 위원 계엄 당일 날 밤 법무부 계엄 관련 회의를 하는데 검찰관이 계엄 관련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해서 사표를 내고 뛰쳐나왔어요. 스물한 분의 국무위원들은 법무부의 검찰관만도 못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총리께 조정태 위원 말씀 전달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달에 그쳐서는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 주셔야지. 당장 대통령이 해야하지 않으면 나라도 물러나겠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 내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내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님께서만은 만약에 그 계엄이 잘못됐다 한다면 농업민생 4법 거부권 다시 생각을 했었어야지요. 농민들을 달래 주고 국민들을 위한다는 마음 가지고 계셔야지요. 똑같이 재의요구를 합니까? 그래서 내란에 동조하는 거다, 그렇게 비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동조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문금주 위원 그러면 뭔가 행동으로 보여 주세요.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고.

차관님, 공익직불제 관련해서 예정처에서 지난 7월 8일 날 공익직불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제가 세부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문금주 위원 차관께서는 지금 공익직불제가 개편 취지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확대도 하고 또 제도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자료를 한번 봐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평가보고서에 보면 저렇게 지금 상당히 비판적인 보고 평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런 정도는 참고를 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알고 있는 것하고 여기에 따른 개선대책을 반영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대책도 만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준수 사항 이런 것들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다 그런……

○문금주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27년까지 예산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한다면 거기에 따른 연차별 재원조달계획도 나와야 되고 연차별로 시행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는 건 저는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가 5조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5년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은 5조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또 공익적불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실행도 할 겁니다. 이미 그건 국정과제에 담겨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도저히 달성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니, 위원님, 공익적불이 아니고요. 수입안정보험도 그렇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것들까지 포함해서 5조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 달성계획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줘 보세요.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제 임의로 5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저희가 약속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매년 국회에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는 겁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장관, 위원님들 질의할 때 팔짱 푸세요.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제가 첫 업무보고 때 장관께 정치적 언어, 정무적 언어는 정제되어야 된다, 함축되어야 된다, 장관께서는 야당과 여당 그리고 정부와 야당 간에 이해충돌이 생겼을 때 거중조정하는 역할, 스피치 리더십을 발휘해 줘야 된다고 부탁한 적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정권은 쿠데타 정권이고 농업을 망치는 농망부의 농망부장관이 송미령이다. 부정하시겠지요. 기분 나쁘시겠지요. 농민들과 저희 민주당원들이 그렇게 토론하고 고민하고 숙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농망법이라고 하고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자체가 재해라고 하고, 이런 의회 무시……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께서 공범 얘기해서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내란 교사범 이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대통령을 가스라이팅시킨 장본인 중의 한 분이다. 어떻게든 거중조정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좀 강조할 수 있잖아요. 계속 시장 논리만이 아니라 농업 예산 더 들어가야 됩니다,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된다고 어린 윤석열을 달랠 줄 알아야 되지 계속 비위를 맞춰 가지고 계속 각을 형성하게 하고, 결국 계엄 사유로 입법 독재라는 얘기가 나오게 하고.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쌀값 약속 지켰습니까? 한우값을 안정시켰습니까? 아까 환율 얘기도 나왔는데 이러면 누가…… 결국 우리 기업들과, 기업들만 피해 봅니까? 원자재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값, 비료값, 에너지 비용, 그게 농업 경영비로 전이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의 절망적 수준으로 갈 것이다. 뻔히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저는 장관께서 상당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의 소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한다면 대통령을 설득시키는 일, 국무위원들에게 농업 예산을 확대시키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줘야 했었다. 그리고 중재안에 대해서 거부권 얘기가 나오기 전에 야당 위원들 언제 한번 찾아와 봤습니까? 이제 와서 여야정 협의회요? 그리고 지금 안은 공개할 수 없다, 여야정 협의회가 되면 중재안을 내놓겠다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그렇게 야당이 만만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만만해요?

2024년에 비상계엄이 웬 말입니까? 부정선거 이게 무슨 똥판지 같은 소리입니까?

장관도 문제예요. 5분 국무회의 끝나 가지고 집에 와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의식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든 혼란된 정국을 수습해 보려고 해야 되지 분명히 지적받았던 내용 그걸 가지고 또다시 농망법, 재해……

신문 기사 한번 읽어 드릴게요.

‘농업 파괴, 농민 말살 윤석열 정권과 송미령 장관이야말로 그 어떤 농업재해보다 무섭고 잔혹한 재앙이다’. 왜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됩니까?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장관님, 힘드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마음이 힘듭니다.

○서삼석 위원 농민들은 더 힘들어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 이기는 정부 없다 또 연달아서 농민을 이길 수 있는 정부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의 어떤 그런 주장이 구호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존재하는 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정부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농림부나 장관 또 재정 당국은 쌀값 얘기를 주장할 때마다 과도한 그런 재정 지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서삼석 위원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하는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거는 평시에 하는 얘기고 지금 이 비상한 시기에는 장관을 비롯한 차관, 전 농림부 직원, 재정 당국, 더 나아가서 이 정부도 비단 농업뿐만이 아니라 제 산업에 대해서, 제 시장에 대해서 비상한 그런 대응 전략을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과도할지라도 과도하게라도 해서 이 비상한 시기를 넘기기 위해서 쌀값을 보장해 내려면 저는 보다 공격적으로 정부가, 농림부가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동의 안 하시겠지요. 그걸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왜?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경기란 경기는 모두가 뽕뽕 얼어붙었어요. 그래 가지고 소비가 안 돼요. 그래서 먹는 것부터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값이 이렇게 둔화되는 거예요, 상승이. 쌀값뿐만이 아니지요, 여타 농산물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과도하게라도 비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 당국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그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면 더 큰 화를 자초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점잖게 경고하는 겁니다.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 보면 개편을 한 이유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고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또 그들에 가려져 있는 계층을 이렇게 두텁게 해 주려고 이런 개편 방안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소농들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부족하다, 이것 동의하세요?

차관, 답변해 보세요. 동의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저희들도 소농을 조금 더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부족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삼석 위원** 있을 거라고 한 게 아니라 많이 있지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래서 어차피 헌법에 나와 있는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50%가 넘어가는 소농들에 대한 배려가 이번에 낸 계획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거,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졸속 계획이다. 차제에 그 대안을 연구해서 제출해 주시고.

동물복지농가 확대 직불제에 관련된 것을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역시나 이번 계획안을 보면 앞서 말한 안대로 검토만 하겠다라는 것이 적시되어 있는데, 동물보호법 제64조제1항을 제가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안에 검토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담아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개선 방안을, 여기 기본계획에 담지 못했던 안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농업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장관님,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반대하시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반대하시거나 동의를 하지 않으신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송옥주 위원** 아니, 있을 수 없는 게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다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2024년 대명천지에 비상계엄이라니 다들 놀라는데 국무위원이 되시면 그게 어떤 근거나 이유에 의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국무위원이 뭐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생각지 못한 자리에서 그 두 어절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송옥주 위원**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진정성이 없으시네요. 그게 헌법에 위반

되고 법률에 위반돼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당시에는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옥주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는 그렇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위헌이고 위법이고 불법이다라는 거에 동의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위헌, 위법이라고 제가 질의할 때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은 그러신 것 아니신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저의 개인적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송옥주 위원** 저는 농식품부장관님의 발언이나 행동이나 그런 부분들이 진정성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신뢰성이 많이 저하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정책과 관련된 질의는 차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공익직불금 기본계획을 봤더니 이 기본계획이 맞는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들이. 포장만 그럴 듯하기도 하고요 또 설익은 계획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에 불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정계획인 기본계획에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돼서 수립되어야 돼서 또 집행 과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거나 입법 목적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거나 구체성, 계획성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런 계획성이 많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공익직불금, 직불금에 대한 예산 규모를 임기 내에 5조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저희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3조 300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2026년은 3조 6500억 그리고 2027년은 4조 4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2027년까지 이 정권이 간다고 그러면 임기가 27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5조에 훨씬 못 미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중기재정계획은 기재부에서 앞으로 5년짜리의 재정지출계획에 대해 자기들이 잠정치로 잡아 놓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확정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송옥주 위원** 그런데 농식품부가 기재부의 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다만 5조를 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 기재부도 인정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지금 국정과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진 게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국정과제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할 겁니다,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진돼야 된다고 하지만 국정과제만을 팔아서 마치 5조가 따 놓은 당상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다,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겁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계획인데요. 아시겠지만 현행에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 면적분에 한해서 직불금을 미지급하는 부분인데 개정안을 보니까 ‘조정의무 미이행 전체 면적에 대해서 미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정책이 있는가 싶습니다. 이게 생산자 단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고민을 해서 이 기본계획에 담았는지 아니면 농림부의 그냥 일방적인 계획이나 이런 걸 담기 위해서 한 건지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그거는 21대 국회에서 만든 법에, 법에 그렇게 해서 지키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 다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니까 좀 유예를 해서,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유예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걸 만들 때는 그게 없었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송옥주 위원** 검토하실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지 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송옥주 위원** 그리고 신규직불 발굴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게 5개년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미리 기본적인 설계라든지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계획에 담기는 자체가 저는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이걸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이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강을 담아 놓는 것이고요. 매년 연 단위로 저희들이 세부 실행계획을 또 만듭니다.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옥주 위원** 구체성이 떨어진다,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저는 윤석열 씨를 반국가 세력의 수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의 비상계엄은 내란을 일으킨 수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당사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무기를 들고 누군가를 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해해서 누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직접. 그 사람을 우리가 살인자, 살인죄를 지은 살인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공공장소에서 누군가를 무기로 죽였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속, 수감하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공직자였어요.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비상계엄은 잘못됐는데 내란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걸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내란죄지요, 살인죄지요. 정확히 말

하면 아까 그 공공장소에서 살인행위. 그게 내란죄인지 아닌지, 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저는 회피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속 수감해서 형사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목소리가 정당한 것 아닙니까? 또 그 양반이 공직자였다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파면시켜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걸 지연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내란죄인지 아닌지, 위헌인지 불법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장소에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장소에서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본 당사자들입니다, 어딘가에서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정말 그 역사적 현장에서 정의를 말하지 않고 눈을 감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장관님도 국무위원으로서 그 순간에 눈을 감는 사람이 아니라 눈 똑바로 뜨고 국무위원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모르겠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봐야 된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그걸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맞지요. 길거리에서 살인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공직에서 당연히 징계위원회에 상정해서 파면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군경을 동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구금시키려고 했고 또 백령도 작전이네 사살 계획이네 여러 작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님들 계시지 않는데 탄핵은 반대한다? 아니, 국민을 살해한 그 살인자가 공직자인데 탄핵을 반대하고 그러면 그 직을 계속 유지하게 해야 됩니까?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와 엄벌은 국무위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장관님, 그런 내란을 일으킨 살인행위를 한 것과 비교했을 때 그 내란을 일으킨 내란 특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올바른 태도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

○이원택 위원 장관님은 그런 한덕수 대행하고 국무위원회 소집할 때, 내란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할 때 그 국무위원회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저는 참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무위원회 성립 조건을 부결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해수부장관이나 농식품부장관이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길거리에서 살인행위를 한 사람을 파면시키거나 수사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건데 그걸 반대해요?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장관님?

장관님, 그 국무위원회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

○이원택 위원 장관님,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장관님께서 첫 국무회의가 열리면 사의 표명하겠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사의 표명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의 표명을 저는 12월 4일 날 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면 장관님, 최소한 내란 특검을 하겠다는 것,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부결을, 의결하는 자리에는 절대 장관님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역사 앞에 눈을 감느냐 눈을 뜨고 직시하느냐의 장관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국무위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을 대행님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저는 장관님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 국무회의에 장관님이 참여하는 것은 역사에서 죄를 짓는 행위기 때문에 장관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길거리에서 살인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살인죄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구속 수감한다고 해야 되고 그 사람이 공직자라면 파면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란 특검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장관님이 참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장관님이 태도를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이상으로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다 마무리됐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종덕 위원님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님 보충질의 3분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방금 전 문금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문자 발송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제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문자 발송을 대변인이 단독 행동으로 하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대변인의 판단은 그냥.....

○**전종덕 위원** 그러면 농림부장관님한테 사전 결재나 사후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전 결재를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그런 중대한 문자를 보낼 때 농림부는 대변인이 알아서 하는 구조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니, 위원님, 그것 말씀드리면 장관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동요하지 말고 일을 안정적으로 그렇게 했었고.....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 거고 그 앞의 것.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 얘기를 들었고요, 대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직원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니까 대변인 입장에서는 우리 열심히 그대로 그냥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종덕 위원**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11시 30분에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때는 계엄이 해제되었다는 것이 확인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의원들이 성원도 안 됐어요.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확신하고 기자들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니, 그런 확신을……

○**전종덕 위원**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 확신을 하고 보낸 게 아니고요, 기자들이 농식품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전종덕 위원** 개별 답변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게? 그리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고 그런 문자를 보내요?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신 거구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위원님.

○**전종덕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문자를, 계엄이 해제된 것도 아니고 성원이 되었던 것도 아닌데 나중에 드러나니까 성원 안 되니까 의원들 다 끌어내라고까지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챙겼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니, 위원님,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고요. 대변인도 그걸 알 수가 있었던 상황도 아닌 거고……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확인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을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그런 문자를 보냈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혀 그러니까 확신을……

○**전종덕 위원** 그 행동이 적절한 행동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확신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위원님.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그 행동이 적절한 행동입니까? 대변인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러면 농식품부장관님은 왜 집에 갔습니까? 회의를 하셨어야지요. 농식품부 어떻게 할 건지를 회의를 하셨어야지 왜 집에 가셨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 같아요. 그 행동이 적절한 행동입니까? 적절한 행동입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요, 당시에.

○**전종덕 위원** 아니, 대변인이 그렇게 기자들이 물어본다는 이유로 계엄이 해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자들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는 것이……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문자 보낸 것 아니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전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 행동이 적절한 행동입니까? 그 문자를 보낸 게 적절한 행위였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농식품부는 상황이 어떻든 그냥 맡은바 소임을 한다 아마 그런 뉘앙스였을 겁니다.

○**전종덕 위원** 그럼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후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는, 어쨌든 사후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절한 겁니까?

30초만 더 주세요, 30초만. 답을 들어야 되니까.

○위원장 어기구 질의에 대해 답을 해 보세요, 장관님. 차관님이 하시든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전혀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대변인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계엄이 성공할 것을 예단하고서 그렇게 할 리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변인도 그렇고……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적절하나 부적절하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 답만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적절하고 부적절하고의 문제는 뭐……

○문금주 위원 차관님, 헌법 공부 안 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엄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아니, 그런데 심각성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장관·차관님이.

○전종덕 위원 못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회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문자를 보낼 때 대변인이 그냥 자기가 막 보내도 됩니까? 이게 농림부의 간판 아니에요, 간판. 장관님 명의로 보낸 거랑 똑같고 차관님 명의로 보낸 거랑 똑같은데 대변인 차원에서 그냥 문자를 막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후적으로 봐서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계엄이 성공할 것을 예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위원장 어기구 아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 부분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걸 자꾸 이상한 변명 하고 그러니까…… 대변인이 막 그렇게 문자를 보냅니까, 그 위중한 상황에? 문자는 막 그냥 대변인 소관이에요, 농림부? 그것 아니잖아요. 다 그게 농림부 이름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분, 장관님과 차관님이 그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이것 잘못됐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반성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그냥 무슨 계엄이 될지 안 될지 몰랐다 이렇게 하는 건 변명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답을 시원하게 못 하십니까?

○전종덕 위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어기구 부적절한 거지요. 부적절한 거지요.

○전종덕 위원 답을 해 보세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어기구 그 와중에 그렇게 대변인 이름으로 문자 나간 게 잘못된 거지.

○전종덕 위원 잘한 겁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

○전종덕 위원 왜 답을 못 해요? 본인의 생각을 말하면 되잖아요.

.....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내란 공범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다음에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차관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농직불제의 문제점은 이 기본계획안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나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다음번에 추가해서 기본계획안에 담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결국은 단가 인상으로 귀결될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지 쪼개기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농의 기준 문제도 어떻게 둘 것인가가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서 대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제가 장관님께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뉴스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잘 안 봅니다.

○임미애 위원 잘 안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이러저러한 지적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으로서 과연 장관의 인식과 태도가 적절한가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헌법 모릅니다’, ‘뉴스 안 봅니다’, 지금도 그러시고 ‘법무부 검찰관과의 얘기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결국 모르쇠로 이 자리만 피해 보겠다라는 식의 태도라고 저희는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태도를 접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분이 이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는구나.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의 태도가 우리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인식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장관이 태도의 전향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장관의 모든 말과 행동을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참여하는 장관은 의결권을 가집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런데 차관이 참여하면 의결권이 없지요. 의결권을 가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안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권한대행이 제대로 된 상황 인식과 판단력을 갖추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때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올바른 국무위원의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이 질의를 했더니 ‘대행께 잘 전달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국무회의에서 대행이 제대로 된 상황 인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저희는 요청하는 거고 그 의견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한 그런 의견이……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자신이 없거나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저는 소극적으로라도 이 국무회의를 기피하는 것이, 그래서 참석하지 않는 것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설득할 자신이 있으시면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다음번 국무회의, 그러니까 이번에 다뤄지는 게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특검 관련한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으로서 태도가 적절치 않다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 장관의 탄핵까지 건의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철현 위원 헌재재판관 임명까지 참석을 해야지.

○임미애 위원 그러네, 재판관은 참석을 해야 되네요.

○이원택 위원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도 형식적이니까……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런데 장관 답변은 좀 듣고 싶은데요.

○문금주 위원 그 뒤에 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윤준병 위원 장관님, 12월 4일 날 사의 표명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사의 표명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총리님과 국무위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윤준병 위원 말로 사의 표명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아니, 사의 표명을 실제 하면 형식적으로는 사표 제출이 사의 표명인데 사표 제출을 왜 안지요? 왜 형식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 안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사의 표명했다고 그러지요? 사표 제출이 실제 사의를 표시하는 형식적인 절차잖아요. 나는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수리가 안 되면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휴가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를 앓는 거예요. 그게 공직자들의 태반이 하는데 장관이 아닌 실국장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걸 말로 ‘사의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걸 사의 표명했다고 계속 대외적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게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대외적으로 계속 이야기한 적 없고요, 위원님.

○윤준병 위원 지금이라도 ‘내란 정권이나 비상불법 계엄이 문제가 있다. 나 동참 안하겠다’ 그러면 사표 제출하세요, 떳떳하게. 그래야 공식적으로 사표가 제출되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게 가장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준병 위원 무책임한 행동인지 아닌지 여부는 제삼자가 판단해요. 본인들이 탄핵과 관련된 내용에 적극적으로 대응도 못 하면서, 오히려 국민 뜻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계속 행동하면서 뭐가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책임 있는 행동 하나도 못 하면서?

공직직불제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주문 사항들이 있었으니까 이 내용은 보완돼야

될 것 같고요.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관련 부처 협의 다 거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그런데 무슨 기재부가 어떻고 단년 계획이어서 어떻고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 기재부가 임의대로 작성합니까? 농식품부가 중기재정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제출 안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제출합니다.

○윤준병 위원 제출한 내용 협의해서 반영했을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제가 말씀드린……

○윤준병 위원 그런데 왜 중기계획이어서 뭐 다른 얘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다음에 농업·농촌 식품 기본계획 달라요. 어떤 게 기본계획이에요? 어떤 게 더 위에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농업·농촌 식품 기본계획이 제일 상위 계획입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맞춰야지요. 왜 다르게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다만 그 이후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계획은 바뀌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도 저희들이 매년 목표는 수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리고 또……

1분만 더 주세요.

면적을 조정하면 쌀과 관련된 내용은 줄 것이고 밀이나 콩이나 우리가 늘려야 될 내용은 조정하면 늘 텐데 그런데 왜 2년 유예가 됩니까? 더 늘려야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게 아니고요. 매년 농지면적은 계속 줄어드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준병 위원 농지면적 계속 줄어드는 거야 이미 농업·농촌 식품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줄……

○윤준병 위원 그것도 예측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니, 그것보다 더 주는 문제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춰서 한 겁니다.

○윤준병 위원 얼렁뚱땅 둘러대지 말고요.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공식적인 자리와 가지고 얼렁뚱땅 둘러대면서…… 농정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보완하겠다고 해야지. 제대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옥주 위원 아니요, 저 손 안 들었는데……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문금주 위원님 먼저 아니고 제가……

○위원장 어기구 예.

○문대림 위원 한마디로 국민들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데 정부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합리적이어서 참 힘듭니다. 빨리 나라가 바로잡아졌으면 좋겠고요.

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서 차관, 탄소중립직불제와 관련해서 이게 정식 지정되지 않았잖아요, 이번 계획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580만 9000t,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은 지금 밑에……

○문대림 위원 아까 임호선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 중에 38페이지 기록을 저도 봤는데 에너지 분야의 예를 보면 현재보다 30만t, 현재 대비 30%를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건데 정작 고효율 에너지 설비 1만t, 농기계 전환 4만t, 나머지 25만t은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보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제출한 거잖아요. 제출한 내용 중에 물론 전기화나 재생에너지 전환 이런 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어쨌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탄소중립직불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 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는 할 거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세부적으로 다 내용을 안 써서 그런데요. 한번 제가 내용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문대림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 방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희는 정식 지정하고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농촌의 농업용 자가 발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도 지원의 내용을 농림부가 스스로 만들어 줘서 어쨌든 농사용 에너지 비용에 대해서 전향적인 접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쪽 얘기 나왔었는데 논 중심의, 논 농업 중심의 직불제도와 관련해서 논 활용 콩 재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있는 것 아시는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논콩, 밭콩 얘기하시는……

○문대림 위원 예, 제주도의 경우에 밭콩……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직불금도 안 나와요,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논 활용 전작물직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대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지역과 농민들이 있다.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장관께서는 지금 예전에 농업 민생 4법을 가지고 농망법이네, 그 자체가 재해네라고 그때 말했던 당시의 그 패기는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저도 얘기를 했지만 내란에 동조를 안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답변을 못 하세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 특검법 관련해서 재의 요구를 하는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말아라, 답변도 못 하시고 또 사표, 사퇴에 따른 의미 있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자체가 무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책임 있는 행동이, 오히려 그게 더 책임 있는 행동이다. 국민들은 다 내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지금 앓아 계시는 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하는 게 저는 거의 동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관, 대변인이 그런 부적절한 문자를 언론에 배포를 했으면 향후에라도 정정하는 내용의 문자랄지 뭔가 시정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변인 개인의 일탈이라면 대변인을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장관이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비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에 따른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야. 얼마나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말씀드릴까요?

○문금주 위원 저는 그런 정도로 안일하게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보고 있는 것도 문체고 장관의 책임 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비겁하게 숨지 마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숨지 않습니다, 위원님.

○문금주 위원 답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 보낸 문자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보냈고 그것을 제가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저희가 무슨 계엄에 동조해서 아니면 계엄이 성공할 줄 알고 그것은 아니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런 변명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바로 들어갔어야 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대변인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라고 제가 구두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제가 처벌하기는 좀 그랬고요. 또 그 이후에 제가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문자를 또 보내기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 적절치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1분 또 드리세요.

○문금주 위원 장관님, 경찰 조사 받으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참고인 조사 받았습니다.

○문금주 위원 당시에 그 문자 관련해서 조사 내용이 없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어떤 문자……

○문금주 위원 대변인의 문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면 가서 뭘 조사받으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3일과 4일, 3일부터의 행적과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금주 위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참 의구심이 드는데 저는 그 문자도 상당히, 제가 경찰이라면 비록 대변인의 개인적인 어떤 돌출 행동이었든 어떻든 그게 다 장관이 지시해서 하는 걸로 생각이 되지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상황 인식이 전혀 안 돼요.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인데요. 저는 사실 이것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직불금을 5조까지 확대하겠다, 2배로 늘리겠다 이게 농민들 사이에 윤석열 씨가 상당히 표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황근 장관이 들어섰고 직불제 5조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5조 이행 계획을 내놓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용역 중이다, 용역 중이라고 하고 일부 증액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익형 직불금 5조가 아니고 공익형 직불금은 한 3조 50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농업직불금이라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채우겠다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대선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대국민 사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황근 장관하고도, 제가 아마 회의록을 뒤져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공익형 직불금 5조를 중심으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했지 다른 수입안정보험이네 뭐네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잘못하면 농민들 입장에서 기만행위로 보일 수 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공익형 직불금 5조 달성 계획을 세워야지 3조 5000억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를 다른 농업직불금이라는 이름으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직불금 내에 전략작물직불금이 있습니다. 가루쌀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논에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 설계 자체가 농민들의 유인책으로, 사실 저는 그때 당시도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뚜렷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논에 쌀 재배보다는 다른 작물로 좀 더 갈 수 있도록 유인책이 플러스알파가 저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작물에 익숙해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어떤 그런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의무 감축 면적을 광역시도에 줬습니다. 줘서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직불금을 감액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감액하고 싶다면 손쉬운 방법 하나 있습니다. 장관님, 돈도 안 들어요. 4만ha가 20만t이잖아요. 그렇지요? 8만ha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지를 용도 변경해 주세요. 8만ha 농지를 용도 변경하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쌀 재배하고 있는 농지를, 물론 가운데 좋은 농지가 아니라 쌀 재배하는 농지 8만ha 용도 변경해 주면 됩니다.

왜 농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자꾸 전환을 하려고 합니까,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자꾸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8만ha 농지 포기하세요, 그냥. 그것을 용도 변경해 주시면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신 없으면 그 방법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자신 있다면 기재부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해서 넘어야 되는 거고 자신 없다면 그 방법을 택하십시오. 그게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농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마셔라. 농민들의 토지 가치라도 올려 줘서 이익을 보게 해 줘야지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마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과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민들의 의견을 얼마큼 제대로 수용했는지 제가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심의를 언젠가는 종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농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형태를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제가 문자 발송 관련해서 엮드려 절반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 일한 인식에 상당히 유감이고 이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심각하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 발송 관련해서 문자 발송 경위하고 후속 조치하고 만약에 후속 조치를 안 하셨다면 후속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발 방지 위한 대책 세우셔서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따르면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2년을 유예한 것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쌀자급률 목표치도 또 2년 유예하게 되는 것인지를 포함해서 쌀자급률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떨어지는 이 자급률 그리고 2년 유예된 이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자료로 제출해서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쌀자급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식량자급률을 말씀……

○전종덕 위원 식량자급률이 2년 유예되면 쌀자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쌀자급률의 목표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식량자급률이든 쌀자급률이든 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장관님, 제가 올 4월 달인가 스위스에 스위스 직불제를 공부하고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농림부의 직불제 담당 과장님도 같이 갔었거든요. 스위스가 전 세계에서 직불제가 가장 잘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번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짜실 때 그때 출장 같이 갔던 그 담당자한테 한번 스위스 직불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그렇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스위스는 전체 농업 예산의 한 80% 정도가 직불금이에요. 직불금이고, 농가 가구당…… 그때 거기서 우리가 공부를 같이 했지요. 가구당 한 1억 원씩 직불금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적 직불금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다음 계획들을 짤 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하시고……

○이원택 위원 위원장님, 이 심의……

○위원장 어기구 뭐 하실 말씀……

○이원택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심의, 지금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나와 있고 또 그게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위원장 어기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또 아까 이해관계인 농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있고 그래서 오늘 심의를 하기보다는 계속 심의를 이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어기구 예.

○윤준병 위원 우리가 위원회에다가 심의하자고 이렇게 그냥 가지고 상정해 놓고 있으면 매듭이 잘 안 되니까 시간을 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보완을 해서 기본계획 보완된 내용이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또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간사님들이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보다 개선된 내용을 정부 측으로부터 다음 회의에 보고받고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부는 오늘 심의 과정에서 나온 논의들을 잘 보완해서 공익직불제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양수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의원실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 위원(19인)

김선교 문금주 문대립 박덕흠 서삼석 서천호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만희  
이병진 이양수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조경태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박범수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박수진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업정책관 윤원습